

■ 주간 증시 포커스

1분기 기업실적 시즌 주목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대외변수 단기대응 바람직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증시가 급등락을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일 중국이 미국 철강관세 인상에 따른 보복조치로 128개 미국수입품목(30억달러 규모)에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다음날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1333개 수입품 리스트를 공개했으며 시진핑은 8시간 내 미국산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급락하던 미국증시는 백악관에서 중국과 협상 가능성을 보이며 급반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다시 미 무역대표부에 1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 3대지수 모두 2%이상 하락했다.

‘시황제’로 불리며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고 중국 상품 무역비중이 200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해 경제체 제질개선을 이룬 중국의 강경대응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당장 G2 무역전쟁으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이 오는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무역분쟁 이슈와 및 미국우선주의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목적은 중국기업으로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미국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증시에서 트럼프발 정치·정책 불확실성은 단기에 마무리되지 않고 올 한해 지속적으로 돌출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증시도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리스크 완화와 호재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채 2분기 코스피지수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며 변동성을 보인 지난 3월 23일 이후 외국인인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330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848억원을 순매도했고 단기적흐름이 강한 선물시장에서도 2만 584계약(현물환산시 약 3조 2000억원)을 순매도하며 조정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국내증시의 흐름변화를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오는 12일, 4월 옵션만기일에도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에도 국내증시는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의 지정학적리스크 완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추세적 하락으로 전환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대외변수에 의해 지수조정폭이 커지면 적극적인 매수에 임하고 반등시 매도하는 단기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신약개발 가능성이 부각되는 제약바이오주와 대중국 관계개선에 따른 중국소비주, 그리고 글로벌시장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반도체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시민들에 신선 먹거리…광주 로컬푸드직매장 급성장

2013년 2곳서 11개로 ↑… 광주농협, 동광주점 착공식
매출액도 4년만에 6배 늘어 농가소득 ‘효자노릇’ 특목

광주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판로확보와 농산물 제값받기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농업인들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8일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에 따르면 광주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11곳이다.

지난 2013년 2곳이 문을 연 뒤 2015년 8곳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10곳까지 늘었던 뒤 올해 1월 광주농협이 자체 3호점인 두암점을 새롭게 개소하면서 11개로 증가한 상태다.

특히, 광주농협은 또 최근 4호점인 동광주점 착공식을 열고 전국 단일매장 중 가장 큰 규모로 건립하기로 했다. 북구 망월동 일대에 지상1층 건물 면적 998㎡(301평) 규모로, 총 50억을 투자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단순히 매장수만 증가한 게 아니라, 매출액도 급성장을 이어가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주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은 ▲2014년 4억5000만원 ▲2015년 10억2500만원 ▲2016년 18억8600만원 ▲2017년 26억9100만원으로 파악됐다. 4년 만에 무려 6배나 매출이 증가한 것이다.



농협목포유통센터 ‘CS 3.0 실천 다짐대회’

농협목포유통센터(사장 김동기)는 8일 진정성 있는 고객대응과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한 ‘CS 3.0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농협목포유통센터 전 임직원들에게 고객만족서비스 실천의지를 다지며, 적극적인 고객서비스를 생활화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협목포유통센터는 이날 결의를 통해 고객이

목포유통센터의 존재가치임을 인식하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고객에게 신뢰받고 함께 교감하는 목포유통센터가 될 것을 다짐했다.

김동기 사장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고객과 소통에 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산란계 급증 계란값 폭락… 농가 ‘울상’ 소비자 ‘냉랭’

30개 들이 한판 3000원대

지난해 초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하면서 30개들이 한 판에 1만원을 넘나들던 계란 가격이 3000대까지 폭락하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생산농가는 계란 판매가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출도산 사태가 우려된다고 호소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AI 창궐 당시 일부 업자들이 보였던 행태와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신뢰를 잃어 버린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6일 현재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4174원으로, 1년 전 7470원보다 44.1% 하락했다. 평년 가격 5855원보다도 1600원 이상 저렴하다.

계란값이 이처럼 폭락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생산농가에서 기르는 산란계(알 낳는 닭) 마릿수가 급증하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271만 마리로, 종전 최고 기록이던 2015년 9월의 7209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의 5160만8000마리에 비하면 40.9%나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초 전국을 휩쓴 사상 최악의 AI 여파로

직매장 매출액 증가는 곧 광주지역 농가들의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고, 유통단계에서 지출되는 비용 없이 제값에 농산물을 팔 수 있어 ‘효자노릇’을 토포하고 있다’는 게 지역 농가들의 반응이다.

이처럼 광주지역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산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점차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는 지역 특성상 도심과 농촌이 공존하고 있어 유통단계가 짧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농가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가까운 직매장에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소비자들도 갖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가까이에서 구매할 수 있어서다.

김일수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지역 농업

인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올해 추가 확대·운영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 농업인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광주농협이 본점(북구 두암동)과 매곡점(매곡하나로마트), 두암점(두암하나로마트) 등 3곳을 운영 중이며, 서광주농협은 시청점(광주시청 1층)을 운영하고 있다.

평동농협도 본점(평동하나로마트)을 비롯, 무인1호점(광산구청 1층)·2호점(수원주민센터)·4호점(첨단1동 1층)·5호점(신창동 1층)·6호점(NH은행점단점)·7호점(NH은행광주영업부) 등 7개소를 운영 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사용자·시설협의 담당자 워크숍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균)는 8일 업무담당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가 및 시설협의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사용자가 관련 법령의 개정된 지침에 따른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은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의 ‘국유재산관리방안’ 강의와 공사 퇴직선배의 실무 경험 노하우를 전달 등 업무담당자 역량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들이 진행됐다.

윤석균 본부장은 “사용자가 관련 개정된 정보와 지식 공유해 공정한 일처리로 고객에게 신뢰를 받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녹차·홍차 찰호두과자 개발

레인보우팜, 상품화 성공

녹차와 홍차를 이용한 찰호두과자를 개발, 상품화에 성공했다.

8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남농기원은 지난 6일 전남지역 농업회사법인 (주)레인보우팜과 녹·홍차를 첨가한 찰호두과자 제조기술 및 상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농기원 차산업연구소와 레인보우팜은 녹차와 찰을 이용한 호두과자를 상품화함으로써 녹차와 찰 소비촉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차산업연구소는 그동안 다양한 기능을 가진 차(茶)를 이용해 호두과자, 찰파스타, 미니한과, 찰중화면 등 상품개발을 추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64채널
충전형 보청기
호환 출시!

NEW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동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